

# 예비교사들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 및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 일본어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미희<sup>1</sup>, 정육성<sup>2\*</sup>

<sup>1</sup>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sup>2</sup>남서울대학교 일본지역전공

On the Effect of Prospective Teachers' Experience of Title of Making UCC Materials on their Teaching Expertise and Creativity: an Empirical Study with Japanese Majors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Mi-Hee Han<sup>1</sup>, Ug-Sung Jung<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수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A대학교의 교직과정 이수중인 일본어전공 예비교사들이며 자료분석은 SPSSWIN Versio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그리고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은 교과전문성과 교수창의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수법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혁신적 교수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그에 대한 활동이 구체화되고 확대되기를 시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일본어전공, 예비교사, 교과전문성, 교사창의성, UCC

**Abstract** The 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how prospective teachers' experience of creating UCC materials affects their teaching expertise and creativity. The group of subjects consists of a group of 19 students majoring in Japanese under the teacher certificate curriculum at N University located in Cheona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set of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Wilcoxon Signed Rank Test using SPSS WIN 21.0.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UCC experiences and their teaching subject expertise/creativity. It was also found that the former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latt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research might suggest that teachers' teaching methods in the field are very important. It is hopeful that innovative teaching methods and activities will be introduced and expanded in the filed to produce more effective education.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Key Words** : Japanese studies, Prospective teacher, Subject expertise, Teacher creativity, UCC

\*Corresponding Author : Ug-Sung Jung(jungsung@nsu.ac.kr)

Received November 8,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6,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 1. 서론

현대사회에 새로운 신종 직업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으로는 유튜버 (You Tuber)가 있다. 유튜버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 하며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의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WEB 2.0이 주목받으면서 소비자였던 사용자는 직접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진, 영상, 음악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매체를 작업 및 제작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의미한다[1]. 그리고 오늘날 UCC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홍보,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CF같은 광고에서도 유사한 형태로써 적용하는 경우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용자 입장에서 UCC가 다양한 요소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면서 사용자들의 변화된 욕구를 맞추어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2].

결국 UCC의 확산은 대부분 사용자가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와 같은 제작 취지에 대한 훼손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며 여기에는 창의성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UCC는 개개인의 특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UCC가 중등의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수방법으로 적용된다면 그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면 외부의 유명강사나 EBS 등의 동영상 강의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기존의 온라인 강의가 아닌 자신들의 교사가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의 개입은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정우 · 조선옥(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부부를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는 '잘 가르치는 교사'와 '재미있는 학습 자료'를 손꼽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습을 위한 동영상의 시청경험도 학생들의 74%가 응답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동영상 학습에 대하여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는 질문에 학생들의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4].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고 하여 LCC(Learner Created Content)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교육의 한 장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든 전술하였듯이 UCC는 새로운 매스미

디어의 장르이면서 중등학생들에게도 선호도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자들의 방법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실수업 환경에서 UCC제작을 통한 교수학습활동 진행은 매우 드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이유로 UCC의 제작 경험에 관한 연구 또한 학습자들이 과제로써 진행된 효과 검증들이 대부분이며 교사나 예비교사로서 UCC 제작경험을 통한 교수자로서의 교과전문성이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6].

또한 학습도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을 상기한다면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극적 존재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정보와 지식을 재창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자로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UCC가 교수-학습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UCC는 이제 기존의 문자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흥미로운 교수-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위한 UCC 제작과정의 경험이 실제로 교과전문성과 교사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과전문성과 교사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수법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혁신적 교수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활동이 확대되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배경

### 2.1 UCC 동영상과 교육적 활용

최근 UCC는 디지털영상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특별한 이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더욱 더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영상콘텐츠의 제작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대중이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산출하게 하였고 이는 네티즌의 적극적인 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UCC는 '손수 제작물로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글, 사진 등의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User가 직접 창의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6-8]. 사실 UCC는 인터넷 웹 2.0과 같은 환경에 의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인터넷 문화가 잠재되어 있던 우리들의 의사소통할 기회를 증가시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면 이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통해 우리사회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존 예전과같은방식의 사회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7].

본 연구는 이와 같은 UCC의 도입이 기존의 주입식교육이 빈번했던 교육의 장 또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 참여 중심의 수업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적 작용을 하리라는 신념에서 교사의 교수방법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허영주(2006)[회원]는 그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동영상 UCC를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면 학생의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며 [9]. 강숙희(2007) 또한 그의 연구에서 UCC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동영상 UCC를 교육현장에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의 교육적 결과를 획득하는 것은 교사의 인식전환과 활용능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가 UCC를 교육매체로서의 유용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동영상 UCC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활용하는 전략을 획득한 후에야 동영상 UCC의 교육 활용 효과가 담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전공 예비교사들이 특히 언어교육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활용했던 동영상을 자신들이 제작자가 되어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의 교수-학습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포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 2.2 교과전문성에 대한 이해

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교과교육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교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과와 기초적 요소를 학습하는데서 이동하여 교수-학습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반성단계를 지나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Darling Hammond(2000), Randi와 Zechner(2004)는 교사의 전문성을 도우려면 잘 선택된 과제와 적절한 스캐폴딩 그리고 지원적인 학습환경 등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의 성장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련의 조건과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1-13].

특히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변인인 교사의 전문성 중 교과전문성은 예비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잘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수업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과전문성은 어쩌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에 나가기 전 매우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는 교사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 일선교사들은 지금까지 교사연수, 대학원 진학, 학회활동, 워크숍 등의 다양한 형태에 참여하며 노력해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과의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과의 연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은 그 교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선도적인 적극적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일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입시교육, 경쟁교육 등으로 인하여 일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실안의 오래된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연구의 질을 높이며 현장과 밀접히 연계됨으로서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의 환경에 적합한 전문성을 신장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교육이론과 방법 등도 교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사실이다[14].

그러므로 교육현장의 학습자는 현재 UCC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이며 현재 사용자만이 아니라 제작자로서 가능한 유튜브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이론 습득

과 학교현장에 적합한 전문성의 신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교과를 위한 질적 확보 및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예비교사들은 선행되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위한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3 교사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이해

창의성은 '통상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계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 속에서 그 가치로서 인정받는 산출능력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15].

21세기는 창의성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더욱더 강조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과학 분야에서는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확대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필수적 핵심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현장에서도 창의성 교육으로 이어져 현재 학교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 교사의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성 교육의 실제와 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있어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교사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수업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의 창의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교사들이 없다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견할 수도, 보상할 수도, 개발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험심이 있는 교사는 학생들의 엉뚱한 아이디어도 기꺼이 경청하려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개발하도록 촉진하게 되지 만, 그렇지 않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창의적인 학생들은 소외와 억압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6,17].

이와 같은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교의 교육적 풍토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가 창의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18]. 하지만 중등기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교육은 교사에게 창의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Halliwell(1993), Woods(1993) 등은 교사의 창의성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보다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사의 창의성을 교사가 교수-학습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교사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8,19]. 백영숙·김희태(2008)는 교사만의 창의성은 교사의 교수-학습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성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수업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내릴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쉬운 점은 창의성교육에서 항상 학습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교사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창의성 교육'이라는 말속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하는 교사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전제되어 있고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창의성 교육에서 교사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성 성장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일이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성 교육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창의성 발달이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창의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어 전공 예비교사들이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A 대학교의 2018년 2학기부터 - 2019년 2학기 일본어전공 교직 이수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년은 2, 3, 4학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학년은 15.8% 3학년이 47.4%, 4학년이 36.8%이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15명, 78.9%, 남학생이 4명, 21.1%로 남학생은 교직이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참여가 저조하였다.

### 3.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만으로 설계된 경우로서 실험처치를 전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처치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두 학기 동안 운영하였으며 15주차 중 3주차에서 팀을 구성하여 준비모임을 갖고 교과전문성과 교수창의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12주차까지 수업에 사용할 UCC를 제작하고 13주차에 완성된 UCC를 발표하며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3.3 연구척도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위한 측정도구로는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1 교과 전문성

본 척도는 예비교사역량을 측정하는 조명희 외 (2014)가 국내 외 문헌고찰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잠재적 역량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대하여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7개요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교과전문성 척도를 적용하였다[21]. 이는 학교현장실습 이후 형성된 예비교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서 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697이다.

#### 3.3.2 교사 창의성

본 척도는 유재선(2018)이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이 척도는 교사 자신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요인으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아이디어 25문항, 창의성 1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22]. 그리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83이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SPSS 21.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에 대한 검사의 신뢰도는 문항 전체 및 구성요인별 Cronbach'a를 구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집단

이 적은 비모수 검정에 적합한 Kendall's tau-b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UCC의 제작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집단이 적은 관계로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4.1 기술통계

본 연구변인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는 사전 교과전문성 평균은2.789(SD=.5353), 사후 교과전문성 평균은 .3032(SD=.4773)이다. 교사창의성은 하위요인으로 사전 아이디어 평균은 2.628(SD=.4679)이며 사후 아이디어 평균은 3.139(SD=.2941)로 나타났다. 창의성 또한 사전 창의성 평균은 2.847(SD=.6306)이며 사후 창의성 평균은 3.230(SD=.3753)이다. 그리고 하위요인을 포함한 교사창의성 변인의 사전 교사창의성 평균은 2.724(SD=.3921)이며 사후 창의성 평균은 3.79(SD=.3534)로 나타났다.

### 4.2 상관분석

본 연구의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에 적합한 Kendall's tau-b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72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적인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교과전문성은 교사창의성 하위요인들과도 창의성 .469, 아이디어 .787 등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s	Subject expertise [1]	Teacher Creativity		
		Idea [2]	Creativity [3]	Teacher Creativity [4]
[1]	1			
[2]	.787**	1		
[3]	.469**	.442*	1	
[4]	.726**	.784**	.681**	1

\*  $p < .005$ , \*\*  $p < .001$

### 4.3 효과검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모집단의 분포와 무관한 비모수 검증(nonparametric test)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4.1 예비교사의 교과전문성 전체 사전·사후 점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Subject expertise

subject expertise	M	SD	z	p
Pre	2.79	.5353	-2.062	.039
Post.	3.03	.4773		

교과전문성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3.03점)이 사전점수 평균(2.7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4.2 예비교사의 교과창의성(아이디어) 사전·사후 점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사창의성 하위요인 아이디어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Teacher Creativity

Teacher Creativity	M	SD	z	p
Pre	2.63	.2941	-3.834	.000
Post.	3.14	.3753		

교사전문성(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3.14점)이 사전점수 평균(2.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4.3 예비교사의 교과창의성(창의성) 사전·사후 점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사창의성 하위요인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Teacher Creativity(Creativity)

Teacher Creativity	M	SD	z	p
Pre	2.85	0.631	-3.154	.002
Post	3.23	0.468		

교사전문성(창의성)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3.23점)이 사전점수 평균(2.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4.4 예비교사의 교과창의성 전체 사전·사후 점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Teacher Creativity

Teacher Creativity	M	SD	z	p
Pre	2.72	.3921	-3.826	.000
Post	3.18	.3534		

교사전문성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3.18점)이 사전점수 평균(2.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사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 전공의 예비교사들이 교직이수과정에서 UCC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예비교

사들이 교육현장에 진출하기 전,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UCC 제작경험은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UCC 제작경험이 교사로서 창의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문제해결 등의 주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영상 UCC는 개인 유튜버가 자신의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어 창작품을 산출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매우 친숙한 교사가 온라인으로 등장하여 그 교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감, 즐거움, 집중 등의 많은 장면들이 연출되어 교육적 효과가 높아진다고 예측되어진다.

물론 기존의 온라인 영상 자료의 사용은 교사가 활용하기만 하면 되므로 번거로움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UCC 동영상 제작은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매체 제작자의 역할을 부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활용까지 일련의 일들의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낮은 현장에서 초보교사로서의 일면을 보여줄 수도 있기에 UCC 콘텐츠 개발, 제작 등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법 등의 선행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는 예비교사이지만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로서의 신념을 갖으며 새로운 혁신적 교수-학습 전략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교직이수과정에서도 새로운 교육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H. S. Woo, M. R. Yeom & D. Y. Jung. (2016). An Analysis on the UCC Media for STEAM Integrate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0), 43-48.
- [2] E. T. Lim. (200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CC -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UCC.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9(4), 403-418.
- [3] J. W. Son & S. O. Cho. (2006). The Survey o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Science-related TV program for stimulating interest and UCC Materials. *Journal of Research and Curriculum & Instruction*, 16(2), 111-143.
- [4] S. H. Park, D. G. Kim & M. S. Kang. (2010). Develop Model of Project UCC Instrctio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22(3), 402-419.
- [5] J. W. Kang & E. J. Kim. (2009). An Exploratory Study on "Audio-Visual UCC Uses of College Students: A TPB-TAM Integrated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1), 187-208.
- [6] H. J. Lee & D. B. Jeong. (2008). The Effect of UCC Task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English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9(1), 283-306.
- [7] J. Y. Chang. (2015).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NS Affecting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6), 213-219.
- [8] J. H. Kim & J. J. Yoon. (2009). The Effect of educational using UCCs on the Capability of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3), 125-143.
- [9] Y. J. Hur. (2006). A Study of Pre-teachers' Perception Change of Educational Usefulness and Limitation of Moving Image's UCC PDF icon.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16(2), 111-143.
- [10] S. H. Kang. (2007). A Study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Educational Utility of UCC.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3(4), 307-321.
- [11] L. Darling-Hammond. (2000). How teachers education matters. *Journal of Teachers Education*. 51(3), 166-173.
- [12] J. Randi & M. Zeichner. (2004). New visions of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Smylie, M. A. & Miretzky, D.(Eds.). *Developing the teacher workforce: 103rd year book of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13] K. H. Lee & M. J. Choi. (2013). A Study of Teachers' Learning and Teacher Creativity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3(1), 5-30.
- [14] O. Y. You. (2012). A Research 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athematics.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16(3), 389-401.
- [15] In K. A. Heller, F. J. Mö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Eds.). (2000). *Csikszentmihalyi. New conceptions and research approach to creativity: Implications of systems perspective for creativity in education*.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NY : Pergamon.
- [16] H. S. Park. (2007). A Exploring Study on the Associate Variables with Teachers' Creativ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6(2), 149-164.

- [17] E. P. Torrance. (1963). *The creative potential of children in the space age*. In E.P. Torrance(Ed). Education and the creative potential.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18] B. Halliwell & S. Chirico. (1993). Lipid Peroxidation Its Mechanism, Measurement, and Significance.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7, 715-725.
- [19] P. Woods. (1993). *Critical events in teaching and learning*. NY : Falmer.
- [20] Y. S .Paik & W. T. Kim. (2008). Validation of the Self Rating Scale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3), 111-128.
- [21] M. H. Jo, H. Y. Lee & H. W. Lee. (2014). Teaching Competencies of Students in College of Education: Focused on 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3), 239-263.
- [22] J. S. Yu. (2018). *An Exploratory Study ou the Development of Teacher Creativity Scale*.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ul.

한 미 희(Mi-Hee Han)

[정회원]



-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윤리학과 (문학사)
- 2005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이러닝 등

· E-Mail : diaplus@nsu.ac.kr

정 욱 성(Ug-Sung Jung)

[정회원]



- 1992 2월 : 일본동북대학교 국문학 ((일본문학석사)
- 1995년 2월 : 일본동북대학교 (일본문학박사 졸업)
- 2004년 2월 : 일본동북대학교 (일본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일

본지역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일본문학, 이러닝 등

· E-Mail : jungsung@nsu.ac.kr